

천원버스 타고 건강 챙겨요

무주군 찾아가는 장터 통합건강센터 '호응' ... 올해 이용객 1000여명 넘어

무주군 찾아가는 장터 통합건강센터가 천원버스(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군에 따르면 천원버스 운행 이후 장터 통합건강센터 이용객 수가 38% 정도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1,212명) 벌써 지난해 전체 이용객 수인 1,028명을 넘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찾아가는 장터 통합건강센터는 5일장을 이용해 주민들이 장도 보고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일과 6일에는 무주읍 반딧불장터, 3일과 8일에는 무풍면 대덕산장터, 2일과 7일에는 살천면 삼도봉장터, 5일과 10일에는 안성면 덕유산장터에서 기초검진과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만성질환자 관리, 금연·영양 상담, 건강증진 통합 홍보관 운영)를 제공한다.

무주보건의료원 김성영 건강증진 담당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읍면에 거주하는 91.8%의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 거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 현실인데 천원버스가

그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장터 통합건강센터 이용객 수가 늘면서 군민건강증진 효과도 거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천원버스(학생 5백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천 원만 내면 무주군 관내는 물론 진안과 장수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으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을 줄여 버스 이용객은 물론, 무주노인종합복지관과 산골영화관 등 복지시설 이용객 수도 꾸준히 늘고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기업유치 활발

장수군(군수 최홍득)은 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그동안 장수농공단지 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한 결과 반딧불이너지, 감치공장 움체 등이 입주 한데 이어 올해 안으로 동방제유, 신가카미술, 하루의 아침 등의 식품기업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은 유망한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장수농공단지 내 식품기업이 5개사 늘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활발한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기업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장수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도 9월 준공된 장수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취·등록세 100%감면, 재산세 5년간 100%감면,

동방제유 등 식품산업 유치 예정

소독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등 세계혜택이 부여되며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 등 기업유치가 실시된다.

입주대상은 음료·식료품, 전자, 기타기계 및 장비, 태양광관련 업종이며 기타제조업(10~33)도 사업성 검토 후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특정 수질·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 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캠페인 전개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장수군은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13일 장수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문화·여행주간(9월 14일~18일)'을 홍보하고 장수관광지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향객과 주민들에게 '승마번지 장수'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올해 연말부터 14개 시군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일환으로 '승마번지 장수'를 운영한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주요 유료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하고 가평된 맛집·숙박·체험 등 특별한 인을 제공받는 자유이용권형 카드이다.

전북투어패스카드 소지자는 장수군의 자유이용관광시설인 방화동가죽휴가촌, 외통자연휴양림, 한누리시네마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관내 특별한가평점 30개소에

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장수승마 체험장의 경우 50% 할인된 금액으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라북도도는 지난 8월 5일에 전북 토탈관광 투어패스 "한국체합1번지 전라북도"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장수군은 "승마번지 장수" 브랜드 명으로 전북투어패스 사업 준비를 마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석명절 선물 나눔행사

직원 등 120여명 참석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배인재)은 복지관 이용회원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120여명이 함께하는 '2016년 추석명절선물'을 최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1부 공연 및 기념식, 2부 찾아가는 추석명절선물 나눔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명석 진안군 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이용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분위기를 내며 즐거운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가졌다.

식전공연으로 복지관 이용회원들의 '난타드드리고'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민요공연, 트로트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명절행사를 마친 후에는 준비한 특식으로 점심을 나누며 명절의 의미를 더했다.

2부 순서로는 복지관을 직접 찾기가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에게 복지관과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 K-water 용담댐관리단에서 준비한 명절선물을 5개

면(용담, 동향, 백운, 성수, 주천) 좋은 세상만들기위원회와 함께 40가정에 전달했다.

배인재 관장은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온전히 합(합)하는 진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말문화축제 열린다

23-25일 승마체험·마상무예공연 등 다채

완주군에서 제1회 2016 완주 말문화축제가 열린다.

군은 말 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국내 승마분야 수요확대 및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해 말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완주 외일드푸드축제가 개최되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완주군 고산미소시장 옆 행사장에서 말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6 완주 말문화축제는 말과 사람이 함께하는 승마교육을 비롯 아이들이 말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말과 친화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전라북도승마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특히 24일 말 퍼레이드(18두)를 비롯해 축제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선착순 200명에 한해 승마체험이 진행되며,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는 마상무

예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말 문화와 대중간의 교감과 말 산업의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승마체험을 비롯해 품종별 말 전시회, 말산업 홍보관 등을 운영해 말 문화 축제 방문객에게 재미와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의 방대한 말 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기초석을 마련하고자 열리는 이번 말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마(馬) 문화 진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승마동호회인 완주군 한라마사마클럽에서는 승마대회에 참가해 제1회 대관령 전국 산악마 경주대회(25km) 단체전 4위, 제1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전국 지구력대회(20km)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드론으로 측량한다

시간·인력 줄여 지적재조사 효율화 제고

무주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 촬영은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과 인력 사용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 외에도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에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안성면 하이덕 지구 일원 153필지 176만 m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으며 군은 고해상도 정사영상상을 기반으로 토지 이용 현황을 분석, 필지별 경계결정 및 필지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드론이 촬영한 최신 영상자료를 활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 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촬영을 계기로 앞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 가공품 수출 실무 실습 교육

진안홍삼연구소(고관택 소장)는 관내 진안홍삼가공품제조업체, 진안홍삼판매장, 진안고원 농산물 수출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홍삼가공품 및 진안고원 농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인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최근 연구소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무역 사례들을 통해 상황별 이해와 수출 준비할 서류, 유의사항 등 수출업체 입장에서 수출인실제 당면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실무 위주교육으로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수출인실무교육에서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지 안영태 단장은 "무역,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주제로 1일차 '시례를 통한 무역의 이해' 넓어진 세계무역시장을 가다, 불경기를 무역

으로 돌파한다, 수출단가는 이렇게 결정한다, 해외고객 발굴전략, 국가간 결제 등 기업의 수출입무역 중요성과 국제규칙을 통한 기본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산업별 사례를 전달했다.

2일차 '무역 필수 서류 작성 교육' '수출화물의 최소물류비 산정, 무역필수 서류는 쉽고 간단히, FTA는 왜 필요한가, 실질무역 서류실무 분석' 등 통상현안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다양한 무역자료를 통해 수출입관련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이항로 군수는 "수출인실무교육을 통해 진안고원 홍삼과 농산물의 글로벌 시장진입 및 확대를 위한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하며 진안 홍삼 제조업체들의 수출입 경쟁력 향상과 시장확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주민과의 소통 투어 시작

수동적 방식 탈피한 능동적 소통 방식

완주군이 수동적 방식을 탈피한 능동적 소통방식으로 10만 주민과의 따뜻한 소통 여행을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과의 대화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평적 협치 소통행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들어주는 '따뜻한 소통 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따뜻한 소통 투어'는 그동안 애로사항 접수를 통해 소통대상자를 선정하는 수동적 방식을 탈피한 민생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 읍면을 비롯해 직소민원실, 공동체사업장, 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 불편사항, 주민간 갈등으로 집단 민

원이 예상되는 마을 등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청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사각지대를 비롯해 바쁜 현업으로 군정 제안의 기회가 많지 않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군정 관련 정책 제안 또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군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군민으로서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알리기 위해 따뜻하고 발로 뛰는 소통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투어는 10월부터 매월 2회 진행되며, 이로써 완주군은 소통간담회, 소통공감단, 소통투어 등 3박자 '완주포 소통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립관리사

진안 상전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애향장·성영호 공익장·유근식 신소득장·한찬성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중환)은 최근 면민들의 장수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애향장에는 성영호씨(52), 공익장에는 유근식씨(54), 신소득장에는 한찬성씨(33)로 결정했다.

애향장 성영호씨는 재경상전산악회 총무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고향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이 인정됐다.

공익장 유근식씨는 지사마을 이장과 새마을 협의 회장을 역임하며 상전면의 대소사를 맡는 등 상전면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이 인정됐다.

신소득장 한찬성씨는 4년 전 귀농을 하여 상전면 후계농업경영인 상전면회 총무 및 멜론특화작목반 총무로서 상전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상전면민의 장은 오는 10월 1일 '제15회 상전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규제개선 중점사례 중 조상묘를 찾는 성묘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묘지(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 주변 허가임이나 피해 우려 등에 대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첨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분 완와 및 찾아가는 사유림 매수 행정서비스 등 적극 홍보하고 산림규제에 대해 불만·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 갔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및 정부 3.0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중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금연분위기 조성 앞장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 금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금연실천 유도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군청 직원과, 장수터미널, 장계터미널 등 3곳에 '금연구역음성안내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 6개월간 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강화 물품 제공 등 금연 성공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제공 및 추가 6개월간 추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금연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연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금연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63-350-315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3대 정맥길 안내도 설치

진안군은 정맥길 종주자와 등산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대 정맥길 주요 지점에 안내도 3개소와 방향이정표 18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분기점인 주화산(조약봉)은 모래재 휴게소에, 부귀산은 주차장, 운장산은 피압목재에 설치하는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정보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지점에 안내도를 설치했다.

방향이정표에는 진안군 홍보를 위한 QR마크와 정맥명, 현위치를 표기함으로써 정맥을 종주하는 등산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친근감 있고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